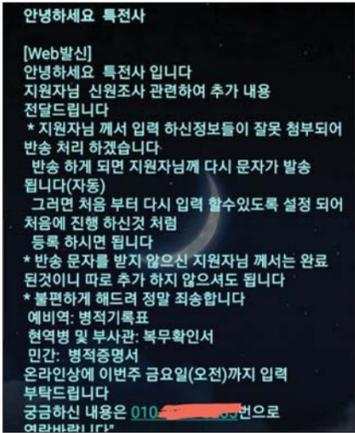


### 특전부서관 선발에 오류 의심

# ‘침묵’ 육군, 은폐의혹

최종합격 발표·시험일정 수시변경  
민간지원자에 병적증명서 요구도  
51기 3차·4차 합격자 급감 ‘의심’  
육군 “선발 기수별 합격자 인원  
체력검정 등 문제 탈락자 변동”



안녕하세요 육전사  
[Web발신]  
안녕하세요 육전사입니다  
지원자님 신원조사 관련하여 추가 내용  
전달드립니다  
\* 지원자님께서 입력하신정보들이 잘못 첨부되어  
반송 처리 하였습니다  
반송 하게 되면 지원자님께 다시 문자가 발송  
됩니다(자동)  
그러면 처음 부터 다시 입력 할수있도록 설정 되어  
처음에 진행 하신것처럼  
등록 하시면 됩니다  
\* 반송 문자를 받지 않으신 지원자님께서는 완료  
된것이니 따로 추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예비역: 병적기록표  
현역병 및 부사관: 복무확인서  
민간: 병적증명서  
온라인상에 이번주 금요일(오전)까지 입력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010-1234-5678번으로  
연락바랍니다

최근 부서관 시험 등을 지도하는 학  
원가에서는 ‘육군 특전부서관’ 선발에  
큰 오류가 있었지만, 육군이 이를 침묵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달 21일 특수전  
사령부 홈페이지에 합격공고가 올라온  
‘특전부서관51기4차’ 선발이었다. 부  
서관지원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오픈챗 방 등에서는 최종합격  
자 발표 및 시험일정이 수시로 변경된  
것과 함께 신원조회 과정에서 육군이  
오류를 범했을 것이라 내용이 올라  
왔다.

복수의 지원자들에 따르면 최종합격  
전 신원조회 과정에서 일부 육군 모병  
관들이 군사복무 경험이 없는 민간지  
원자에게 병적증명서를 요구했다.

7월 10일 특전사령부에 공지된 특전  
41기 4차지원자 신원조사 첨부파일에  
민간지원자가 제출할 서류는 ▲신원진  
술서 ▲나의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  
의서(안보지원부대용) ▲개인신용정  
보조회서 ▲기본증명서 상세 뿐이다.

익명의 한 지원자는 “모병관이 (신원  
조사) 입력한 정보가 잘못돼 반송 처리  
하겠다고 병적증명서를 문자로 요구  
했다”면서 “신원조사 첨부 파일도 당초  
7월 12일까지 신원조사 파일을 작성하  
라고 했는데 오류 등이 발생해 7월 24  
일까지 작성해 달라는 문자알림도 받  
았다”고 말했다.

신원조사 과정의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특전부서관 51기4차 최종합격자  
발표도 당초 예정된 지난달 14일에서 1  
주일 늦춰진 21일에서야 발표가 났다.  
단지 선발과정 상의 일정변경과 시스  
템 오류로 볼 수도 있지만, 부서관 시험  
관련 학원가에서는 선발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서관 시험가에서 선발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  
는 코로나19 이후로 특전예단별 시  
험에서 특전사령부 통합측정으로 변경  
된 특전부서관51기3차와 51기4차에서  
합격자가 급감했다는 점과 특히 51기4  
차의 경우 필기와 체력검정까지 합격  
한 263명 중 절반 정도인 139명만 최종  
합격을 했다는 점이다.

합격자 인원이 적었던 특전부서관  
51기3차의 경우, 필기 및 체력을 모두  
합격한 223명 중 신원조회 과정에서 탈  
락한 사람은 44명 뿐이었다. 특전부사  
관 출신들은 신원조회에서 상당수 탈락  
할 수 있지만, 절반 가까이 탈락하는 일  
은 좀 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선발 기수  
별 합격자 인원은 체력검정 등의 문제  
로 탈락자가 많을 수 있다”면서 신원조  
회 상의 오류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  
다. 때문에 관련 학원가 등에서는 육군  
이 선발오류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비슷한 시기 합격자 통보의 오류가  
발생한 해군이 신속하게 오류를 바로  
잡고 개별사과를 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육군  
의 자세로 인해, 육군 부서관선발에 대  
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 우려도 나온  
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 “신뢰받는 정당 거듭... 혁신 DNA 심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법절차 이후 대국민사과 할 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리 당이 신  
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  
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을 결집해 새로운 미래,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시대를 열어가겠다”  
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온라인 형태로 진행한 기자간담회 모  
두발언을 통해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  
로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며 이같  
이 말했다. 이어 “후퇴하지 않을 변화  
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히 심겼  
다. 새로운 정강·정책을 기반으로 시대  
정신과 국민 요구를 담은 변화를 이끌  
어 내고 당 조직·정책·선거 등 당 운영  
전반에 혁신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  
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형  
사재판 실행 선고로 구속 수감 중인 이  
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  
과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전직) 대통  
령에 대한 사과를 여러 번 말했다만, 사

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사법 절  
차가 완료된 이후 적절한 시점을 택해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내년 4월 예정된  
재·보궐선거와 내년 20대 대선을 앞  
두고 인재 영입과 육성 전략에 대해서  
도 말했다. 그는 “과거 특정 기득권 세  
력에 집착했던 정당이 아니라 모든 국  
민을 아우르는 정당으로 변신하기 위  
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해보겠다  
고 관심 갖는 분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  
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인재 영입과 관련해 “당  
내부를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형  
태로 변경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당  
내부에서 소위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밖에 계신 분들이  
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우리 당에 흡  
수돼서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리라 생각한다”며 부정  
적인 입장을 전했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  
해 “서울시장 후보가 되실 분들은 ‘서  
울 시민이 어떠한 시장을 갖길 원하는  
나’ 여기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분이  
최적”이라며 “가급적이면 새로운 비전  
을 제시하는 인물이 적정한 사람이라  
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인물이 당내에  
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을 두고 “안 대표를 개인적  
으로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 활동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  
고,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인물을 발굴해  
서울시장, 대통령 후보를 내놓을 것”이  
라고 선을 그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홍정  
욱 전 의원 영입 가능성을 두고도 “외  
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  
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에 대해 질문을  
자꾸 하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할 이유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과기정통부 ‘전자서명’ 민간 평가·인정기관 절차 마련

정보보호 3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  
비스 임의인증제도가 도입된 ‘전자서명  
법’의 후속조치로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  
서명인증사업자가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 전자  
서명 도입 기반 마련, 정보통신망연결  
기기 등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평가 절차  
정비 등을 위해 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  
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  
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전자서명 시장에서 기술·서비스 경

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  
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  
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또 온라인  
공청회를 11일 개최해 국민 및 이해관  
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고시, 전자서명인  
증업무준칙, 국제통용평가 고시’ 등도  
마련해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법  
시행 시점에 맞춰 제·개정을 추진할 계  
획이다.

정부는 전자서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전자서명 시장경쟁 활성화  
기반이 조성돼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및 서비스가 출현하고 국민들의 전자  
서명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서명 인증  
업무에 대해 평가·인정하는 절차와 방  
법을 마련했으며, 평가·인정을 받은 전  
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범위는 정보  
보호지침 권고의 대상이 되는 기기범  
위를 ‘대표 융합산업분야’로 예시함으  
로써 정보보호지침 권고 대상, 침해사  
고시 대응, 기기 등 인증범위를 명확히  
했다. /채윤정 기자 echo@

## 농수산물식품 말레이 수출 21% 증가

aT, 과실류 30% 김치 34% 상승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산 과일이 고소  
득층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과실로 인식되면서 구입이 증가하는  
등 농식품 수출이 순풍을 타고 있다.

3일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에 따르면, 한국 농수산물  
식품의 말레이시아 수출은 7월 말까지  
7768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약 21%  
증가했다. 특히 전년 동기대비 30% 증  
가한 과실류와 34% 증가한 김치가 수  
출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말레이시아 내 고소득층 공략을 위해  
지난 9월 2일 말레이시아 최고중심가  
KLCC에 위치한 이세탄(Isetan)에서  
유통업체 바이어를 대상으로 K-Food  
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



말레이시아 K-Fresh Zone /aT

K-Food 수입바이어와 공동기획한  
이번 설명회에서 김치, 고추장을 비롯  
해 프리미엄 과일인 샤인머스캣과 거  
봉, 고품질 유아식 및 유아용 스낵 등  
다양한 한국식품을 KMT, 유로아틀란  
틱 등 주요 바이어에게 직접 소개했다.  
/한용수 기자 hys@

## 농식품부, 김치·라면 등 농식품 수출 ↑

전년비 4.9% 증가해 총 48억달러  
김치 40%, 라면 37%, 소스 24% 등

김치와 라면 등 우리 농식품 수출이  
전년대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로 인  
한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수출  
국별 전략 품목을 선정해 비대면·온라  
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8월말 누  
계 기준(잠정)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한 48억4567만불  
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수출 효자 품목인 김치(97.9백만불,  
40.3% ↑), 라면(405.4, 36.7 ↑)은 물론,  
소스류(200.9, 23.5 ↑), 닭고기  
(50.2, 24.2 ↑), 쌀가공식품(85.0, 21.7 ↑)  
등의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김치 수출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코  
로나19로 인해 건강·발효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비건 김치 등 새로운  
수요층을 적극 공략한 결과다. 국가별  
김치 수출액은 일본 4860만불  
(29.3% ↑), 미국 1640만불(69.1% ↑),  
호주 410만불(76.4% ↑) 순이다.

라면은 장기보관과 가정 내 간편식  
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큰 폭으로 증  
가했다. 특히, 라면 수출액은 전체 수  
출액의 8.4%를 차지, 올해 농식품 수  
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소스류·쌀가공식품 성장도 눈에 띈다.  
가정에서 요리에 활용되는 고추장 등 장  
류 소비 증가와 즉석밥과 떡볶이 인기가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한용수 기자

## 7일 ‘곤충의날’ 기념식 농식품부, 온라인 진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제2회  
곤충의 날’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온라  
인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초 예정곤충생태관에  
서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  
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이재욱 차관과 주요  
인사의 격려와 당부사항 전달, 동애등  
에 대량 생산 연구, 화분배개 곤충대량  
증식기술 개발·보급 등으로 곤충산업  
유공 표창을 받은 14명의 수상자 소감  
이 유튜브로 중계된다. 기념식에 이어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곤충산업 중장  
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동향 공유와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